

어머니의 社會心理的 力量 및 자녀에 대한 受容성과 아동의 社會的 力量과의 관계

박 호 준* · 정 영 숙**
금천고등학교* · 충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복지학과**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Psychosocial Competence, Acceptance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Park, Ho Joon* · Chong, Young Sook**
Kum Cheon High School* · Dep. of Child Welfare., Chungbuk Nat. Uni.**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what relationship exists between the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psychosocial competence of mother, mother's acceptance for her children and is to clarify how children's sex, the demographic backgrounds of the families are affecting for the children's social competence.

The detailed research areas which were dealt with in this study can be described as follows :1) Are there any relationships between mother's psychosocial competence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2) Are there any relationships between mother's acceptance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3) Are there any differences in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ccording to their sex? 4) Are there any differences in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ccording to familie's demographic backgrounds?

Third grade 314 children who attend primary-school in Chongju were randomly selected as the subjects for the study and their mothers were also involved as subjects. Among them, mother-daughter pairs are 151 and mother-son pairs are 163.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1. There appeare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the mothers' psychosocial competence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2. There appeare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the maternal acceptance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s the result of a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maternal acceptance appeared as a variable which indicates children's social competence.
3. There appeared differences in competence between boys and girls, and girls' social competence was higher than that of boys.
4. There appeare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socioeconomic status of a family.

Among demographic backgrounds of a family, mothers' academic careers, mothers' age, fathers' jobs, income were the variables which affect children's social competence.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여러가지 환경에 의해 복합적인 영향을 받으며 성장 발달한다. 어린이를 둘러싼 여러 환경 중에서도 가정은 인간이 태어나서 최초로 접하게 되는 생활 및 학습의 장소로 인간교육의 근원이 되는 곳이며 장래 생활의 기초가 되는 곳이다. 또한 개인은 가정생활을 통하여 인간관계의 기초를 배우며 규범, 가치, 태도 등을 내면화하게 된다. 이렇듯 가정은 인간의 사회화(socialization)에 일차적인 책임을 담당하고 있다.

인간에게 있어 사회화란 전생애에 걸쳐 진행되며, 하나의 유기체인 개인이 그가 속한 사회의 적합한 구성원으로 형성되는 과정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따라서 인간이 태어나서 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데 필요한 사회적 역량(social competence)은 최근 1970년대 이후 집중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O'Malley(1977)에 의하면 사회적 역량의 연구가 중요시되는 이유는 첫째, 사회적 역량이나 대인간의 능력과 관련된 행동은 사회생활에 참여하는 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둘째, 사회적 역량과 관련된 변인들은 학업성취의 예언력을 높여줄 수 있고 셋째, 사회적 역량의 연구는 사회적 발달을 좀 더 완전한 형태로 보여주는 인간 행동의 통합된 영역으로 이해하게 해 준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회적 역량은 많은 학자들의 관심영역이 되고 있다.

Freud의 정신분석 이론을 비롯하여 현대의 심리학적 이론들을 보면 초기 어머니와의 관계를 중요시한 이래로 많은 연구들이 아동의 사회화 과정에 있어서 부모의 행동 및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는 사회화를 위한 최초의 경험일 뿐만 아니라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험이 된다고 한다. 또한 부모는 자녀가 동일시 하는 최초의 대상이고 성역할의 발달에 있어서도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부모자녀 관계에서 특히 강조되는 것은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로, 어머니의 태도나 행동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환경적 요인 중에서도 가장 크다고 하겠다. 또한 어머니와의 상호작용 과정은 자녀의 인지발달 및 언어발달, 그리고 자녀의 사회적 역량과 적응은 물론 사회적 행동과 태도에도 직접적 영향을 주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아동의 사회적 역량에 대한 선행 연구, 즉 초기의 애착(Ainsworth, 1967, 1969; Ainsworth & Bell, 1969), 역할수용능력(한성희, 1985), 부모의 양육형태(Baumrind, 1973; 이해영, 1985; 박범실, 1986; 심숙희, 1987; 김정아, 1989), 사회계층(박용임, 1987), 가족의 사회심리적 환경(정영숙, 1991) 그리고 부모의 지지(Ellis, Thomas, & Rollins, 1976) 등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 볼 때 부모 체계와 아동의 사회적 역량 체계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계 문헌들이 만족스러운 가족 생활이란 긍정적인 부모 자녀간의 상호작용을 내포하며, 이것이 자녀의 사회적 역량을 예측한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지만, 성인이 아동의 사회적 역량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보다 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목적은 어머니의 사회심리적 역량 그리고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수용성, 사회인구학적 배경과 아동의 사회적 역량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계 변인 중 어떤 변인이 아동의 사회적 역량을 가장 잘 예측하는지 찾아내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선행연구(정영숙, 1991)와 본 연구 결과를 비교하여 아동의 연령 증가에 따라 어머니에 관련된 변인과 아동의 사회적 역량과 어떠한 상관이 있는가를 알아보려는 것이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어머니의 사회심리적 역량과 자녀의 사회적 역량간에 관계가 있는가?
- (2)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수용성과 자녀의 사회적 역량간에 관계가 있는가?
- (3) 아동의 성에 따라 아동의 사회적 역량에 차이가 있는가?
- (4)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따라 아동의 사회적 역량에 차이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어머니의 사회 심리적 역량(Maternal Psychosocial Competence): 인간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돕는 행동 형태의 기초가 되는 자아-숙성의 용어로 개념화한다. 역량있는 사람의 행동에는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현실적이고 계획적인 목표를 설정하며, 성공을 즐기워하고, 실패의 경험으로부터 다시 배우는 것이 포함된다. 역량이 부족한 사람은 수동적이고 불가능한 계획을 세우며, 불규칙한 방법으로 목표를 설정하며, 성공을 즐기지 못하거나 실수하는 경우에는 더 심한 상처를 받는다.

어머니의 수용성(maternal Acceptance): 아동에 대한 어머니의 감정이나 행동으로서 특히 무조건적인 사랑, 아동의 권리와 욕구에 대한 인식, 아동은 그들 나름대로의 독립심과 자율성을 가지고 성장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어머니의 감정이나 행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비수용성은 거부, 무관심, 과잉 보호, 자율적인 자아를 발달시키려는 아동의 능력을 방해하는 행동들을 포함하는 어머니의 감정과 행동들로 개념화한다.

아동의 사회적 역량(Children's Social Competence): 아동의 사회적 역량은 매우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환경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아동의 능력으로 어머니와 교사가 지각하는 사회적 책임감의 정도로 개념화한다.

2. 어머니의 사회심리적 역량

가족구성원의 핵심이 되는 부모자녀 관계는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이며 부모자녀 관계의 질에 따라서 자녀의 성격 및 사회성 발달이 좌우된다.

Erikson(1963)은 인간이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맺게 되는 대인관계의 질과 정신기능을 중심으로 인간의 발달과정을 8단계로 나누어 설명하였으며, 출생 후 초기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에 의하면, 학령기(6-11세)는 아동의 근면감이 발달되는 시기로 만일 아동이 정상적으로 근면감을 발달시키지 못하면 열등감을 형성하게 된다고 한다. 근면감은 성공했던 경험을 통해서 아동의 성취동기나 경쟁심, 역량감 등이 강화되는 데 따라 발달하게 된다. 그 결과로 근면감을 가지게 된 아동은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획득하며 외부 세계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가지게 되어 능동적이고 활발한 성격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은 근면감의 발달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으로 아동에 대한 부모의 태

도를 들 수 있다(서봉연, 1983).

Freud에 의하면 유아의 행동이나 성격발달은 부모를 무의식적으로 동일시 함으로써 부모와의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그 주된 변인은 어머니의 태도, 성격이라 하였다.

Ainsworth와 Bell(1974)에 의하면 아동은 선천적으로 타인의 관심과 협력적인 보살핌을 유도해 내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와 같은 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아동의 욕구와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어머니와 아동의 호혜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아동의 사회적 능력은 발달해 간다고 하였다(박용임, 1987).

Mondell과 Tyler(1981)는 부모의 문제 해결과 자녀의 놀이 행동에 대한 연구 결과, 역량 있는 부모는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즐기워하며, 온정적이고, 더 긍정적이고, 구조적인 지시를 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역량이 부족한 부모는 자녀에게 더 독재적이었으며, 온정적이지 못하며, 문제 해결에 대한 암시를 거의 주지 않았고, 본보기가 되지 못하고, 하는 일에 흥미를 덜 느꼈다. 여기에서 연구자들은 부모의 역량이 자녀와의 상호작용 형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Rogers, 1961; MacDonald & Parke, 1984; 정영숙, 1991에서 재인용).

Sherman 과 Farina(1974)는 대학생들 대상으로 청소년 남아의 사회적 역량과 연관된 어머니의 사회적 기술(social skill)의 적합성을 조사한 연구에서, 다른 사람을 다루는 데 부적합한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생애 초기에 사회적 기술이 부족한 무능한 부모에게서 습득된다고 가정하였다. 연구 결과, 사회적으로 역량 있는 어머니의 자녀는 사회적 역량이 높았고, 사회적 역량이 부족한 어머니의 자녀는 사회적 역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연구자는 부모의 역할 학습이 아동의 사회적 역량 발달에 중요하다고 제안하였다(Bullock, 1987). 정영숙(1991)은 4-7세의 유치원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의 사회심리적 역량과 자녀의 사회적 역량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 이유를 대상아동이 아직 적절한 사회적 역량발달이 이루어지지 못한 관계로 또는 사회적 역량의 어느 한 측면만을 평가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해석하였다.

Krantz, Webb 및 Andrews(1984)는 부모의 사회적 참여가 유치원 아동의 사회적 역량에 잠재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즉, 친구들과의 사교적 모임

에 잘 참여하는 부모, 지역사회 활동에 잘 참여하는 어머니는 자녀의 사회적 역량과 상관이 있었다(Bullock, 1987).

이상에서 살펴 본 연구들은 모두 자녀의 사회적 역량에서 아동과 어머니와의 상호작용, 어머니의 성격, 양육태도, 사회적 행동과 기술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것은 특정한 가족 요인이 환경과의 긍정적인 상호 작용에 필요한 기술과 행동 등의 역량을 제공한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

3.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수용성

어머니의 양육태도나 방법은 자녀의 성격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 중에서도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수용성은 아동의 사회적 역량 발달에 결정적인 요인 중의 하나이다.

Symonds(1939)는 연구에서 수용성(acceptance)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였고, 이것을 수용(acceptation)과 거부(rejection)의 연속으로 정의를 내렸다. Rollins와 Thomas(1979)는 Symonds의 수용-거부 연속체와 지배-복종 연속체는 각각 지지차원, 통제차원에 상응하는 유사한 개념이라 제안하였다. 연구자들(Rollins & Thomas, 1979)에 따르면 부모의 지지차원은 선행연구의 문헌 속에서 온정, 애정, 양육성, 수용, 보호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나타난다.

수용적인 부모는 지지적이지만 자녀에게 확고하고 적당한 한계를 두며, 수용할 수 있는 행동과 수용할 수 없는 행동을 분명히 한다. 그러나 비수용적인 부모는 자녀들을 존중하지 않고, 격려하지 않으며, 자녀들을 귀찮은 존재로 생각한다(Coopersmith, 1967).

수용적인 부모의 자녀들은 일반적으로 사회적인 책임감이 있고 독립적이며 자신과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알고 사교적 협동적이며(유안진, 1985), 형제간 사회성 점수도 높았다(김상희, 1989). 또한 남아의 지배성, 사려성, 사회성이 높았으며(한종혜, 1980), 아동의 사회적 역량은 높게 나타났다(Turner & Harris, 1984).

Symonds(1939)는 부모의 애정을 많이 받은 집단이 사회적으로 더 용인되는 행동을 하고, 협동적 우호적이며 정직하고 사회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반면, 거부 당했다고 느낀 집단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초조하며 활동이 어수선하며 주의를 끌기 위한 행동이 많았다고 보고했다.

Sears(1960)는 수용과 애정의 분위기 속에서 자란

아동은 부모에 대한 신뢰의 태도가 성장과 함께 일반화되어 남을 사랑하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고 자기 방어 의 필요도 느끼지 않게 되며 행동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개방적이고 솔직하게 된다고 한다(반현주, 1984).

Kanner는 어머니의 수용적이고 애정적인 태도는 안정성이 있고 정상적인 성격을 발달시키며, 외적 거부, 공격성, 비행, 정신박약의 특징을 아동에게 초래한다고 한다(반현주, 1984).

Watsons(1972)에 의하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수용적인 태도는 아동의 협동심과 사회성을 보다 잘 숙달시켜 교우간에 좀 더 친해질 수 있으나 만약 부모가 엄격하면 비협동적이며 사회성이 결핍되기 쉽다고 하였다. 또한 거부적인 양육태도의 부모를 가진 자녀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에게서 적대시되고 있다고 느껴 자신을 방어하므로 자신과 타인 사이에 장벽이 생기고 또래와의 관계가 바람직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였다(김경희, 1986).

박범실(1986), 김정아(1989)의 연구에 의하면 어머니가 합리적으로 지도하고 자녀의 행동에 한계를 지어 주며 일관성 있게 시행해 나갈 때 아동은 사회적 활동성이 높고 낯선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 나가며 낯선 사람들과도 상호작용을 잘하고 협력적인 행동을 나타내었다.

정영숙(1991)의 연구에 의하면 자녀에 대한 수용성과 자녀의 사회적 역량과는 상관이 높게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성인 체계에서 특별히 자녀에 대한 부모의 수용성이 아동의 사회적 역량을 예측한다는 사실을 지지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부모의 수용성이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작용과 긍정적인 행동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제안한다.

Kantz(1977)도 수용적이고 지지적인 성인이 심리적 으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을 지지하며, 이것이 아동의 사회적 역량발달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상호작용을 한다고 보고하였다(정영숙, 1991).

이상과 같이 성인의 수용성과 지지성에 대한 문헌 고찰을 통해서 어머니가 수용적이고 지지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녀를 양육하면 자녀의 사회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사실, 즉 수용적이고 지지적인 가족환경이 건강한 인성발달과 아동의 사회적 역량발달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Erikson, 1963).

그러므로 가정에서 자녀에게 성취감을 복돋아 주고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여 아동을 의욕이 넘치는 건강한 인격체로 만들며 가정의 분위기를 수용적이고 민주적으로 만드는 것도 아동의 사회적 역량 발달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겠다.

4. 아동의 사회적 역량

사회적 역량(social competence)이란 용어는 최근에 교육학과 심리학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며, 사회적 역량의 개념에는 가치판단이 관련되기 때문에 각 문화나 사회마다 이를 각기 다르게 정의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행동의 인지적 정서적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여러 정의에 의하면 역량(competence)은 능력(ability)과 관련된 개념으로 주어진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일련의 숙련적인 기능이며, 이는 학습된 것일 수도 있고 생득적인 것일 수도 있다. 여기에 관련된 개념으로는 적성, 성능(capacity), 재능(talent), 능력(faculty) 등이 있다.

사회적 역량에 대한 개념은 크게 환경에 대한 적응의 측면(White, 1959; Connolly & Bruner, 1974), 인성구조적 측면(Baumrind, 1973; Kohn & Roseman, 1972), 사회적 상호작용의 측면(O'Malley, 1977; Foster & Ritchey, 1979; Perry & Bussey, 1984)을 강조한 개념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환경에 대한 적응의 측면을 강조한 학자들은 사회적 역량이란 생존을 위해 환경에 적합한 행동을 형성, 발달시켜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라고 본다. White(1959)에 의하면 역량은 환경과 효과적으로 상호 작용하기 위한 유기체의 능력(organism's capacity)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능력은 유기체에서 학습되지 않으며 타고난 특성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감수성이 강한 신경 조직을 가진 포유동물과 특히 인간에게서는 환경과 상호작용하기 위한 적합성이 오랜 학습을 통하여 서서히 학습되어 진다고 하였다.

인성구조적 측면을 강조한 학자들은 다양한 인성구조 중 긍정적인 특성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을 사회적 역량이 있다고 보고, 부정적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 사회적 역량이 없다고 보았다. Schaefer와 Bayley(1960)는 애정, 외향성, 접근성 등을 긍정적 행동으로 보고 적대감, 복종, 내향성, 회피성 등을 부정적 행동으로 보면서 긍정적 행동의 영역에 있는 것을 사회적 역량으로 보았다.

Kohn과 Rosman(1972)은 아동의 사회적 역량을 측정

하는 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연구를 하였다. 그들은 요인분석 결과 관심, 호기심, 단호함 등의 긍정적인 항목과 관심의 결여, 기회로부터 회피를 나타내는 부정적인 항목을 포함한 요인과 교실내에서 규율을 지키고 교사의 요구나 제안을 받아들이는 긍정적인 항목과 교실내에서 다른 아동의 활동을 방해하고 교사에게 반항하는 부정적 항목으로 이루어진 요인을 제시하였다.

사회적 상호작용의 측면을 강조한 학자로 O'Malley(1977)는 사회적 역량을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생겨나는 대인관계의 목적을 달성하는 능력으로 보았고, Weinstein(1969)에 의하면 이런 능력은 타인의 역할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 다양한 활동 전략을 가지는 것, 적절한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인 관계를 위한 개인 내적 자원을 가지는 것 등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생태학적 관점을 기초로 행동 관찰 기법이라는 새로운 기법을 사용하여 아동의 사회적 역량을 측정한 White와 Watts(1973: The Harvard Preschool Project)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역량에 대한 정의에는 환경 속에서 적용하는 능력이 반영된다. 이 연구에 따르면 잘 발달된 6세 정도의 아동은 사회적으로 승인되는 방식으로 성인의 관심을 끌고 유지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과업이 너무 어려울 때는 성인을 자원으로 활용하고, 어른에게 애정이나 적대감을 표현할 줄 알고, 또래 관계를 주도하고 이끌며, 또래에게 애정이나 적대감을 표현할 줄 알고, 또래와의 상호 작용에서 경쟁심을 나타낼 수 있으며, 자기가 성취한 일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자랑할 수 있고, 성인의 역할놀이 행동에 참여하며, 언어적 역량이 발달하고, 지적 역량의 발달과 같은 사회적 역량을 지니게 된다고 한다.

Block(1983)에 의하면 사회적 역량의 개념에는 자아 회복력(ego resilience)과 자아 손상(ego brittleness), 그리고 자아 통제(ego control)가 포함 된다고 하였으며 Anderson과 Messick(1974)은 사회적 역량이 일반적인 지능 이상을 뜻하며 아동발달을 증진시키고 평가하는 데 기초가 된다고 보았다. 또한 Gunzberg(1973)는 사회적 역량은 개인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 통용되는 행위의 기준과 관습, 습관에 동조하려는 정도로 표현되며 사회적 지식과 사회적 기술을 포함하고 자발적인 방향성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정영숙, 1991에서 인용).

Zigler(1973)는 사회적 역량은 환경을 다루는 한 개인의 일상적 효율성이라고 정의하였으며 그 내용으로 적합한 형식적 개념을 익히는 능력, 학업을 잘 수

행할 수 있는 능력, 법의 충돌 없이 안전할 수 있는 능력, 성인과 다른 아동과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능력을 제시했다(Anderson & Messick에서 인용, 1974).

사회적 역량에 대한 대부분의 정의에 의하면, 사회적으로 역량 있는 아동은 독립적이고, 성취지향적이며, 또래나 성인에게 반응적이고, 규칙에 순응하는 특징을 지닌다. 또한 모든 이론들의 중요한 유사점은 사회적 역량이 단일한 개념이 아닌 많은 관련 기술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사회적 역량에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아동의 능력이 반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사회적 역량이란 환경에 적용할 뿐만 아니라 환경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함으로써 대인관계의 목적을 달성하는 능력이라 정의할 수 있다.

아동의 사회적 역량을 측정하는 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또래에 의한 사회성 측정법(sociometric status), 부모나 교사 등의 성인에 의한 평가 방법, 자연적인 상황이나 한정적인 상황에서 행하여 지는 행동 관찰법(behavior observation), 자기보고(self-report)의 평가 방법이 있다. 아동의 사회적 역량을 측정하는 여러 방법은 각기 장점과 단점을 지니며, 이에 따라 아동의 사회적 역량에 대한 연구 설계는 조사하고자 하는 대상 집단의 연령이나 특성, 연구자가 주관적으로 가지는 사회적 역량에 대한 개념 정의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아동의 사회적 역량은 본질적으로 상황적이며(Hymel & Asher, 1977), 이러한 상황의 전후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가정할 때 아동의 사회적 역량을 측정하는 데 가능한 한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교사와 어머니에 의한 평가방법을 함께 사용하고자 한다.

5. 사회인구학적 배경

(1) 성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역량

아동의 사회적 역량이 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지 선행 연구를 조사하였다. Griffiths(1952)는 6-14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행동 특성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았는데, 여아보다 남아들이 더 비협조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많이 보였다고 하였다. 사회적 인지와 사회적 역량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된 Ford(1982)의 연구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사회적 역량이 높았으며,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한 Ramsey(1988)의 연구에서도 남아들이 여아들보다 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3세 아동을 대상으로 자유놀이 시간에 또래 상호작용을 관찰하여 아동의 사회적 역량을 평가한 Liberman(1977)의 연구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국내 연구로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차준희(1983)의 연구에서는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성차가 없었고, 한성희(1985)의 연구에서도 3,5,7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사회적 역량의 발달 경향을 살펴 본 결과 유의한 성차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4-6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윤은섭(1987)의 연구에 의하면 성별에 있어서 사회성 발달에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었는데, 사회성 발달 하위요인 및 영역별 능력이 하위요인 관계에서 여아는 의사 전달하기 및 정서영역 능력에 점수가 높았다. 박범실(1986)에 의하면 사회적 역량의 안정성 영역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안정되어 있었으며, 김정아(1989)의 연구에서도 아동의 사회적 역량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비협조성은 남아에게서 협조성은 여아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이병림(1987), 정영숙(1991)의 연구에서도 교사가 평가한 아동의 사회적 역량이 여아가 남아보다 높게 평가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아동의 사회적 역량에 대한 성차연구에서 일관된 경향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유의한 성차가 있었으며 여아가 남아보다 사회적 역량이 높았다.

(2) 사회경제적 지위

가족환경은 아동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며 아동은 이에 적응해야만 한다. 교육, 직업, 수입 등과 같은 가족의 구조적인 요인은 아동의 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Gottman과 그의 동료들(1975)은 아동의 사회적 역량과 우정에 대한 개념을 연구하기 위하여 국민학교 3,4학년 중류층과 하류층 아동을 대상으로 사회적 기술, 사회적 상호작용, 인기도 관계를 조사했는데 사회적 역량 하위 요인 6가지 모두에서 중류층의 아동이 하류층의 아동보다 더 높은 점수를 얻었다고 하였다. Ramsey(1988)는 3.2세-5.7세 중류층과 하류층 아동을 대상으로 사회적인 전략, 사회성 측정법, 교사에 의한 사회적 역량 평가를 비교하여 연구하였는데, 하류층 아동이 중류층 아동보다 더 빈번히 가설적인 상황에 대해 공격적인 행동으로 반응하였고, 중류층 아동은 더 안정적이고 공유하는 전략을 사용하였으며, 교사의 평가에서도 일관되게 중류층 아동이 하류층 아동보다

사회적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숙자(1984)의 연구에서 국민학교 5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사회성을 창의성, 협동성, 자기 표현성으로 간주하고 가정환경 변인과 사회성간의 관계를 조사했을 때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부모의 교육정도에 따라 사회성 발달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대체로 가정의 경제수준과 부모의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사회성이 높았다. 이영순(1987)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교육정도와 수입은 유아의 사회성 영역인 사회적 활동성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아버지의 교육정도가 고졸 이상이고 수입이 높을수록 유아의 사회적 활동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혜영(1985)의 연구에서 아동의 사회적 역량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증가했고 집단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박용임(1988)이 사회계층에 따른 가정환경이 아동의 사회적 역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5-6세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서도 사회 계층이 상집단일수록 가정환경은 보다 풍부한 자극과 경험을 제공하여 아동은 사회적으로 활동적이고 낮은 상황이나 타인에 잘 적응하고 협력적이었다.

김정아(1989)에 의하면 아동의 사회적 역량은 사회계층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어머니의 평가에서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아동의 사회적 활동성, 협조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정영숙(1991)의 연구에서는 아동의 사회적 역량 점수는 교사평가 및 관찰자평가 모두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6개 국민학교 3학년 아동 350명과 아동의 어머니 350명이었다. 수집된 자료 350부 중에서 불성실한 자료 32부를 제외하고 남아아동-어머니 163쌍, 여자아동-어머니 151쌍, 총 314쌍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2. 측정도구

(1) 어머니의 사회심리적 역량 척도

어머니의 사회심리적 역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Tyler(1978)가 제작한 The Behavioral Attributes of Psychosocial Competence Scale(BAPC)을 정영숙(1991)이 번안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질문지의 문항수는 47문항이며 점수의 범위는 0점에서 47점까지이다. 이 검사도구의 신뢰도 계수는 예비 조사에서 .74, 본조사에서 .76으로 나타났다.

(2)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수용성 척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수용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Porter(1954)가 제작한 The Parental Acceptance Scale(PAS)을 정영숙(1991)이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문항수는 25문항으로 각 항목에 대해 1점(낮은 수용성)에서 5점(높은 수용성)을 부여한다. 따라서 점수의 범위는 25부터 125점까지이다. 이 검사도구의 신뢰도 계수는 예비조사에서 .64, 본조사에서 .60으로 나타났다.

(3) 사회인구학적 일반배경 조사

연구 대상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은 <표 1>과 같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있어서 선행연구(이혜영, 1985)를 참고로 하여 아버지 어머니의 학력, 아버지의 직업, 가정의 월수입을 각각 점수화하고 합산하였다. 각 변인들을 7단계로 나누고 1점에서 7점까지의 점수를 부여하였다. 가능점수 범위는 4-28점이다.

(4) 아동의 사회적 역량 척도

아동의 사회적 역량을 측정하기 위해 정영숙이 사용한 The California Preschool Social Competency Scale(CPSCS)을 국민학교 학생에 공통적으로 관련되는 문항은 원안대로 채택하고 유아에게만 해당되는 문항은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3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문항은 1수준(낮은 역량 수준)에서 4수준(높은 역량 수준)까지로, 점수 범위는 30-120점이다. 이 검사도구의 신뢰도 계수는 예비 조사에서 .96, 본조사에서 .93으로 나타났다.

3. 연구기간

연구기간은 1991년 3월 10일부터 1992년 11월 30일까지이다. 예비조사는 1992년 7월 11일부터 7월 18일까지, 본 조사는 1992년 8월 21일부터 1992년 8월 30일까지 실시되었다.

4. 자료분석

총 조사지 314세트의 자료분석을 위하여 피어슨 적률상관관계(pearson product moment correlation coef

ficients), t검증, F검증(Duncan검증), 단계적 중다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 Cronbach a의 통계방법을 사용하였다.

〈표 1〉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일반배경 (사례=314)

변인	구분	사 례(%)	변인	구분	사 례(%)
아동의 성별	남아	163(51.9)	추가특수	4인 이하	221(70.4)
	여아	151(48.1)		5인 이상	93(29.6)
아동의 출생순위	첫째	172(54.8)	자녀수	1인	33(10.5)
	둘째	120(38.2)		2인	228(72.6)
	셋째 이하	22(7.0)		3인 이상	53(16.9)
어머니의 학력	중졸이하	51(16.2)	아버지의 학력	중졸 이하	17(5.4)
	고졸	171(54.5)		고졸	114(36.3)
	대졸이상	92(29.3)		대졸 이상	183(58.3)
어머니의 직업	무	229(72.9)	아버지의 직업	기능직	10(3.2)
	기능직	11(3.5)		판매·기술직	91(29.0)
	판매·기술직	34(10.8)		사무·관리직	159(50.6)
	사무·관리직	40(12.8)		전문·관리직	54(17.2)
어머니의 성장지	면소재지	84(26.8)	아버지의 성장지	면소재지	69(22.0)
	읍	40(12.7)		읍	31(9.9)
	중소도시	138(43.9)		중소도시	153(48.7)
	대도시	52(16.6)		대도시	61(19.4)
어머니의 종교	기독교·천주교	129(41.1)	아버지의 종교	기독교·천주교	84(26.8)
	불교	103(32.8)		불교	76(24.2)
	없음	82(26.1)		없음	154(49.0)
어머니의 연령	30세이하	6(1.9)	아버지의 연령	33세 이하	7(2.2)
	31-33세	62(19.7)		34-36세	73(23.2)
	34-36세	148(47.1)		37-39세	136(43.0)
	37-39세	77(24.5)		40-42세	74(23.6)
	40세이상	21(6.7)		43세 이상	25(8.0)
결혼생활년수	9년 이하	23(7.3)	가정의 월수입	99만원이하	78(24.8)
	10-11년	155(49.4)		100-149만원	136(43.3)
	12-13년	98(31.2)		150-199만원	51(16.2)
	14-15년	25(8.0)		200만원이상	49(15.6)
	16년 이상	13(4.1)			
주택형태	단독주택	112(35.7)	가정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하	36(11.5)
	연립·다세대주택	19(6.1)		중	183(58.2)
	아파트	165(52.5)		상	95(30.3)
	기타	18(5.7)			

동의 사회적 역량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2〉 아동의 사회적 역량

대 상	평균(표준편차)	점수범위	사 례
교사평가	93.95 (13.57)	44 - 119	314
전 체	어머니 평가 91.24 (9.52)	60 - 115	314

〈표 3〉 아동의 사회적 역량에 대한 어머니 평가와 교사 평가간의 상관관계

대 상	교사 평가	사 례수
어머니 평가	전 체 .34 ***	314

*** P < .001

아동의 사회적 역량에 대한 어머니 평가와 교사 평가간의 상관관계를 알아 본 결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r = .34$)를 나타내었다($P < .001$)〈표 3〉. 이는 두 평가 중 어느 평가로나 아동의 사회적 역량을 설명할 수 있음을 나타내준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목적이 어머니의 변인과 자녀의 사회적 역량과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평가한 아동의 사회적 역량을 중심으로 결과를 해석하기로 한다.

2. 어머니의 사회심리적 역량과 자녀의 사회적 역량

어머니의 사회심리적 역량의 가능 점수는 0-47점이며, 어머니 자신이 평가한 사회심리적 역량의 점수분포는 13-45점으로 평균은 29.66점이었고 표준편차는 5.96이었다〈표 4〉. 이로 미루어 어머니의 사회심리적 역량점수는 만점의 1/2 이상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4〉 어머니의 사회심리적 역량

대 상	평균(표준편차)	점수범위	사 례
전 체	29.66 (5.96)	13 - 45	314

어머니의 사회심리적인 역량과 아동의 사회적 역량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r = .20, p < .0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IV. 결과 및 해석

1. 아동의 사회적 역량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사회적 역량을 평가하기 위하여 어머니 평가와 교사 평가를 함께 실시하였다. 아동의 사회적 역량에 대한 점수의 가능 범위는 30-120점이고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2〉와 같다. 평균 점수가 만점의 3/4 이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아

<표 5> 어머니의 사회심리적 역량과 아동의 사회적 역량간의 상관관계

대상	아동의 사회적 역량	사례수
총사회심리적역량 전체	.20 ***	314

*** P < .001

<표 6> 어머니의 사회심리적 역량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역량

대상	어머니 사회심리적 역량	사례	아동의 사회적 역량 평균(표준편차)	F값	Duncan($\alpha = .05$)		
					(1)	(2)	(3)
전체	저 (1)	78	87.97(9.22)	6.62** *			
	중 (2)	167	92.03(8.94)				
	고 (3)	69	93.03(10.41)				

** P < .01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냄

어머니의 사회심리적 역량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역량을 알아보기 위하여 F검증을 실시하였다<표 6>. 아동의 사회적 역량은 어머니의 사회심리적 역량에 따라 집단별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어머니의 사회심리적 역량이 고·중집단이 저집단보다 아동의 사회적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어머니의 수용성과 자녀의 사회적 역량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수용성의 가능 점수는 25-125점이며, 어머니 자신이 평가한 수용성의 점수분포는 68-107점으로 평균은 90.76점이었고 표준편차는 7.34이었다. 수용성의 점수가 만점의 2/3 이상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수용성은 대체로 높다고 볼 수 있다<표 7>.

<표 7>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수용성

대상	평균(표준편차)	점수범위	사례
전체	90.76 (7.34)	68 - 107	314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수용성과 아동의 사회적 역량간의 상관관계는 $r = .29(P < .001)$ 로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8>.

<표 8> 어머니의 수용성과 아동의 사회적 역량과의 상관관계

대상	아동의 사회적 역량	사례수
총의 수용성 전체	.29 ***	314

*** P < .001

<표 9> 어머니의 수용성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역량

대상	어머니 수용성	사례	아동의 사회적 역량 평균(표준편차)	F값	Duncan($\alpha = .05$)		
					(1)	(2)	(3)
전체	저 (1)	76	87.67(10.60)	9.01*** *			
	중 (2)	162	91.65(8.83)				
	고 (3)	76	93.95(8.81)				

*** P < .001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냄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수용성 정도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역량을 알아보기 위하여 F검증을 실시한 결과, 아동의 사회적 역량은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수용성에 따라 집단별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수용성이 고·중집단이 저집단보다 아동의 사회적 역량이 높았다<표 9>.

4. 사회인구학적 배경과 아동의 사회적 역량

(1) 성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역량

어머니가 평가한 아동의 사회적 역량 점수에서 여아와 남아의 차이를 t검증 하였다<표 10>. 남아와 여아의 사회적 역량 점수는 각각 평균 89.94점과 92.65점이었고, 표준편차는 9.78과 9.05였다. 남아와 여아의 점수는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여아가 남아보다 사회적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성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역량

	평균	표준편차	사례	t 값
남아	89.94	9.70	163	- 2.54*
여아	92.65	9.05	151	

* P < .05

(2)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역량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가능 점수는 4-28점이며 본 조사에서 나타난 평균점수는 18.72점, 표준편차는 3.53였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점수가 만점의 2/3에 해당하는 것으로 미루어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대체로 높다고 볼 수 있다.

<표 11>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대 상	평균(표준편차)	점수범위	사 례
전 체	18.72 (3.53)	9 - 26	314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아동의 사회적 역량과의 상관관계를 알아 본 결과, 아동의 사회적 역량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유의한 정적 상관($r = .24$)이 있었다($P < .001$) <표 12>.

<표 12>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아동의 사회적 역량간의 상관관계

	대 상	아동의 사회적 역량	사 례 수
가정의 사회경제적지위	전 체	.24***	314

*** $P < .001$

<표 13>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역량

대 상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사 례	아동의 사회적 역량 평균(표준편차)	F값	Duncan($\alpha = .05$) (1) (2) (3)
전 체	하 (1)	36	88.39(8.90)	10.96***	* *
	중 (2)	183	89.92(9.37)		
	상 (3)	95	94.87(9.07)		

*** $P < .001$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냄

아동의 사회적 역량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13>. 아동의 사회적 역량은 상집단과 중·하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하일 때보다 상일 때가 아동의 사회적 역량이 높았다($P < .001$).

(3)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역량

<표 1>에 제시된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아동의 사회적 역량에 차이가 나타난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전체표본에서 어머니 학력, 아버지 직업, 어머니 연령, 가정의 월수입이었다<표 14>.

<표 14> 아동의 사회적 역량에 영향을 주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변 인	구 분	사 례(%)	변 인	구 분	사 례(%)
어머니 학력	중졸이하	51(16.2)	아버지 직업	가능직	10(3.2)
	고졸	171(54.5)		판매·기술직	91(29.0)
	대졸이상	92(29.3)		사무·관리직	159(50.6)
어머니 연령	30세이하	6(1.9)	가정의 월수입	전문·관리직	54(17.2)
	31-33세	62(19.7)		99만원이하	78(24.8)
	34-38세	148(47.1)		100-149만원	136(43.3)
	37-39세	77(24.5)		150-199만원	51(16.2)
	40세이상	21(6.7)		200만원이상	49(15.6)

<표 15>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역량 (전체 표본)

어머니 학력	사 례 (314)	평균(표준편차)		F값	Duncan($\alpha = 0.05$)		
		(1)	(2)		(3)		
중졸이하(1) 고졸 (2) 대졸이상(3)	51	89.04(10.53)	14.67***	* *			
	171	89.57(8.72)					
	92	95.57(9.04)					
아버지 직업	사 례 (314)	평균(표준편차)		t값			
		(1)	(2)				
가능·판매·기술직 사무·전문 관리직	101 213	88.22(9.24)	-3.97***				
		92.68(9.33)					
어머니 연령	사 례 (314)	평균(표준편차)		F값	Duncan($\alpha = 0.05$)		
		(1)	(2)		(3)		
		30이하 (1)	6		87.50(3.73)	4.25*	*
31-39세 (2)	287	90.92(9.48)					
40세이상 (3)	21	96.76(9.58)					
가정의 월수입	사 례 (314)	평균(표준편차)		F값	Duncan($\alpha = 0.05$)		
		(1)	(2)		(3)		
		99만원미만 (1)	78		88.95(9.82)	3.19*	*
100-199만원 (2)	187	91.84(9.40)					
200만원이상 (3)	49	92.61(9.04)					

* $p < .05$

*** $p < .001$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냄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역량을 알아보기 위하여 F검증, t검증을 실시하였다<표 15>. 어머니 학력은 고졸 이하일 때보다 대졸 이상일 때 아동의 사회적 역량이 높았고(P< .001), 아버지 직업은 사무·전문관리직인 경우가 기능직·판매직인 경우보다 아동의 사회적 역량이 높았다(P< .001). 어머니의 연령은 39세 이하인 경우보다 40세 이상인 경우 아동의 사회적 역량이 높았으며(p< .05), 가정의 월수입은 99만원 미만인 경우보다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 아동의 사회적 역량이 더 높았다(p< .05).

5. 아동의 사회적 역량 예측 변인

아동의 사회적 역량을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확인하기 위하여 아동의 사회적 역량에 대해 어머니의 사회심리적인 역량, 자녀에 대한 수용성,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독립변수로하여 단계적으로 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어머니의 수용성과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아동의 사회적 역량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회귀식에 포함되었다(P< .001)<표 16>.

<표 16> 아동의 사회적 역량 예측 변인(전체 표본)

예측 변인	β (B)	상수	F
어머니의 수용성	.29 (.38)	57.03	28.83***
Multiple R R ²			.29 .08
어머니의 수용성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27 (.35) .20 (.54)	49.34	22.06***
Multiple R R ²			.35 .12

β : 표준화된 회귀계수

B: 비표준화된 회귀계수

*** p < .001

아동의 사회적 역량에서 가장 설명력이 큰 변인은 어머니의 수용성이었다.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수용성은 변량의 8%를 설명하였고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추가되었을 때 설명력이 4% 증가하여 두 변인의 설명력이 12%가 되었다 (P< .001).

V. 요약 및 논의

1.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의 사회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인 중 어머니의 사회심리적 역량, 자녀에 대한 수용성, 자녀의 성, 사회인구학적 배경과 아동의 사회적 역량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아동의 사회적 역량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1) 어머니의 사회심리적 역량과 자녀의 사회적 역량간에 관계가 있는가? (2)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수용성과 자녀의 사회적 역량간에 관계가 있는가? (3) 아동의 성에 따라 아동의 사회적 역량에 차이가 있는가? (4)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따라 아동의 사회적 역량에 차이가 있는가? 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청주시에 있는 국민학교 중에서 6개 학교를 임의표집하고 국민학교 3학년 아동 314명(남아 163명, 여아 151명)과 그들의 어머니 3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사회인구학적 배경, 어머니의 사회심리적 역량,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수용성은 아동의 어머니가 측정하였고, 아동의 사회적 역량에 대해서는 어머니와 담임교사가 각각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어머니 평가와 교사 평가간에 상관도가 높았으므로 그 중 어머니 평가를 채택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PC*를 이용하여 기술통계, 단순상관관계, t검증, F검증 그리고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어머니의 사회심리적 역량과 아동의 사회적 역량 점수간에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어머니의 사회심리적 역량이 높을수록 아동의 사회적 역량이 높았다.

(2)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수용성과 아동의 사회적 역량 점수간에는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수용성이 높을수록 아동의 사회적 역량이 높았다.

(3) 아동의性に 따라 사회적 역량점수에는 차이가 나타났는데, 여아가 남아보다 사회적 역량이 더 높았다.

(4)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아동의 사회적

역량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상집단 아동이 중·하집단의 아동보다 사회적 역량이 높았다.

그리고 어머니의 학력, 어머니의 연령, 아버지의 직업, 가정의 월수입에 따라 아동의 사회적 역량에 차이가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 때,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 때, 아버지의 직업이 사무 전문 관리 직일 때, 가정의 월수입이 많을 때 대체로 자녀의 사회적 역량이 높은 경향이였다.

아동의 사회적 역량을 예측하는 변인은 어머니의 수용성과 가정의 사회경제적인 지위로 나타났으며 이때의 설명력은 12%였다.

(5) 아동의 사회적 역량에 대한 평가에서 어머니 평가와 교사 평가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2.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어머니의 사회심리적 역량 및 자녀에 대한 수용성과 아동의 사회적 역량간의 관계를 알아보려는 것이었다. 연구결과에서 어머니가 응답한 각 변인의 점수와 아동의 사회적 역량 점수간에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인체계와 아동체계 사이에 관계가 있음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어머니의 사회심리적 역량과 아동의 사회적 역량간, 그리고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수용성과 자녀의 사회적 역량간에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난 것은 이론적 배경에서 고찰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어머니의 사회심리적 역량이 자녀의 사회적역량을 예측해 줄 수 있다는 연구(Krantz et al., 1984; Sherman et al., 1974)에 의한 가정, 즉 어머니가 역량이 높으면 자녀도 높은 역량을 가질 것이라는 가정을 본 연구에서는 지지하여 어머니의 사회심리적 역량이 높을수록 아동의 사회적 역량이 높았다. 그런데 정영숙(1991)의 연구에서는 예측된 가설이 지지되지 못하였고, 그 이유를 연구의 대상자가 취학전 유아들이었으므로 아직 적절한 사회적 역량발달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또한 역량을 발휘할 기회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부모의 사회심리적 역량과 자녀의 사회적 역량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유아보다 더 큰 아동, 청소년,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비교해 보고 일관성이 있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을 국민학교 3학년 아동으로 하여 어머니의 사회심리적 역량과 자녀의 사회적 역량과

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였다. Erikson(1963)에 의하면 학령기(6-11세)는 아동의 근면감이 발달되는 시기로 아동은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획득하며 외부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가지게 되어 능동적이고 활발한 성격을 가지게 되는 등, 사회적 역량이 발달하게 된다. 아동들은 취학 후 활동범위가 넓어지고 학교생활을 통하여 좀 더 적절한 사회적 역량 발달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 결과 선행 연구에서 대상 아동에게 잠재되어 나타나지 않았던 아동의 사회적 역량이 표출되어 사회심리적 역량이 높은 어머니의 자녀가 사회적 역량이 높게 나타났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수용성과 자녀의 사회적 역량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나 어머니가 자녀에게 수용적으로 대할수록 아동의 사회적 역량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박범실(1986), 김정아(1989)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며, 또한 부모의 수용적 양육 태도와 아동의 사회적 역량과의 관계를 살펴 본 여러 연구들(Symonds, 1939; R.R.Sears, 1960; Baumrind & Black, 1967; E.Rosen, 1972; Hoffman & Saltzstein, 1967; L.Kanner; Watsons, 1972; Turner & Harris, 1984; 이해영, 1985)의 일반적인 결과를 지지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영숙(1991)의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성인체계에 특별히 자녀에 대한 부모의 수용성이 아동의 사회적 역량을 예측한다는 사실을 지지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성인이 아동의 사회적 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를 통해 어머니가 수용적이고 지지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녀를 양육하면 자녀의 사회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사실, 즉 수용적이고 지지적인 가족환경이 건강한 인성발달과 아동의 사회적 역량발달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자녀에게 성취감을 북돋아 주고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여 아동을 의욕이 넘치는 건강한 인격체로 만들며 가정의 분위기를 수용적이고 민주적으로 만드는 것도 아동의 사회적 역량 발달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겠다.

아동의 사회적 역량은 아동의性に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여아가 남아보다 사회적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Ford, 1982; Gesten, 1976; Ramsey, 1988; 이병림, 1987; 김정아, 1989; 정영숙, 199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아동의 사회적 역량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아동의 사회적 역량은 높았고 집단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계층이 높을수록 아동의 사회적 역량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Gottman과 그의 동료들(1975), Ramsey(1988), 전숙자(198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아동의 사회적 능력의 긍정적 영역 점수는 사회계층이 상위계층일수록 높게 나타났고, 사회적 능력의 사회계층에 따른 차이는 상층과 하층간에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하는 이해영(1985), 박용임(1987), 김정아(1989)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아동의 사회적 역량이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는 정영숙(1991)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의 연구에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아동의 사회적 역량이 차이를 나타내지 않은 이유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어머니 자신이 지각한 것으로 측정하였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또한 아동의 사회적 역량은 어머니의 학력, 아버지의 직업, 어머니의 연령, 가정의 월수입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어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직업이 전문직으로 갈수록,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 가정의 월수입이 많을수록 아동의 사회적 역량이 높았다. 이는 전숙자(1984)의 연구에서 가정의 경제수준과 부모의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아동의 사회성이 높았다는 결과와, 이영순(1987)의 연구에서 아버지의 교육정도와 수입이 높을수록 유아의 사회적 활동성이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를 지지하며,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직업이 전문직으로 갈수록 아동의 사회적 역량이 높았고(정영숙, 1991),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 때와 어머니의 연령이 낮을 때 아동의 사회적 역량이 낮았다(정영숙, 1992)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연령이 많아질수록 자녀양육에 대한 인간적 이해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나타내며 이러한 수용적 태도가 아동의 사회적 역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한 바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어머니의 사회심리적 역량과 자녀의 사회적 역량은 유의한 정적상관을 갖는다.

(2)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수용성과 자녀의 사회적 역량과는 유의한 정적상관을 갖는다.

(3) 여아가 남아보다 사회적 역량이 높다.

(4)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직업이 사무 전문 관리직일 때,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 가정의 월수입이 많을수록 자녀의 사회적 역량이 높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어머니가 자녀의 사회적 역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조사하였다. 연구의 결과, 어머니는 아동의 사회적 역량에 다양한 방식으로 연관되어 있었다. 후속 연구로 아버지가 아동의 사회적 역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본 연구 설계를 참고로 하여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학교 3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추후 연구에서는 대상을 좀 더 확장하여 국민학교 고학년 아동,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실시하여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어머니 변인과 아동의 사회적 역량이 어느 시기에 가장 상관이 높게 나타나는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본 연구 결과가 부모와 교사들이 현장에서 아동의 사회적 역량을 발달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기초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김경희(1986). 「아동심리학」, 서울:박영사
- 김상희(1989). 「형제간 및 또래간 사회성에 영향을 주는 가족 인구학적 변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아(1989).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관련된 제 변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범실(1986).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그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용임(1987). 「사회계층에 따른 가정환경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반현주(1984). 「어머니의 성격과 유아의 사회·정서적 발달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봉연·이순형(1983). 「발달심리학」, 서울:중앙적성출판사.

심숙희(1987).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 및 인기도와와의 관계",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안진(1985). 「유아환경론」, 서울:창지사.

윤은섭(1987). "놀이와 사회성 발달과의 상관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영순(1987).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혜영(1985). "아동의 사회적 역량에 관한 일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영숙(1991). "가족의 사회심리적 환경과 아동의 사회적 역량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가족환경, 어머니의 사회심리적 역량과 아동의 사회적 역량간의 관계", 충북가정학회 창간호, pp 27-55.

차춘희(1983). "부-부재와 모-자 상호작용의 질이 유치원 아동의 지적 발달과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한성희(1985). "아동의 사회적 능력 발달과 역할수용 능력 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8).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인기도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제 9권 제 1호, pp 82-91.

한종혜(1980). "부모의 성 및 양육태도와 학동기 자녀의 인성과의 관계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두승(1983). "직업 분석을 통한 계층 연구-한국 표준 직업 분류를 중심으로, 사회과학과 정책 연구", 제 5권 제 3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pp 69-86.

Ainsworth, M.D.(1967). *Infancy in Uganda, infant care and the growth of love*. Baltimore: John Hopkins University Press.

———(1969). Object relations, dependency, and attachment: A theoretical review of the infant - mother relationship. *Child Development*, 40.

Anderson, S. and Messick, S.(1974). Social Competency in Young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Vol.10, No.2, pp.282-293.

Baumrind, D.(1973). The Development of

Instrumental Competence through Socialization, in A.D. Dick (Ed.),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Vol.7,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pp.3-46.

Baumrind, D. and Black, A.E.(1967). Socialization practices associated with dimensions of competence in preschool boys and girls. *Child Development*, 38, pp.291-327.

Block, J. H.(1983). Differential premises arising from differential socialization of the sexes: Some conjectures. *Child Development*, 54, pp.1335-1354.

Bullock, J.R.(1987). Family environment, adult psychosocial competence, parental acceptance, and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s peer relations. Unpublished manuscript, Oregon State University.

Connolly, K. and Bruner, J.(1974). Competence: Its nature and nurture, The growth of Competence, eds. Connolly, K. and Bruner, J. London: Academic Press, pp.3-7.

Coopersmith, S.(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Freeman.

Ellis, J.R., & Thomas, D.L., & Rollins, B. C.(1976). Measuring parental support: The interrelationship of three measures.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38, pp.713-722.

Erikson, E.H.(1963). *Children and society*, (2nd ed). New York: W.W. Norton and Co., Inc.

Ford, M.e.(1982). Social Cognition and Social Competence in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Vol.18, No.3, pp.323-340.

Foster, S.L., & Ritchey, W. L.(1979). Issues in the assessment of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 *J. of Applied Behavior Analysis*, 12, pp.625-638.

Gottman, J., Gonso, J. and Rasmussen, B.(1975). Social In-teraction, Social Competence, and Friendship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Vol.45, pp.709-718.

Hymel, S., and Asher, S.R.(1977). Assessment and trianing of isolated

children's social skills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136-930).

Kohn, M., & Rosman, B.L.(1972). A social Competence Scale and symptom Checklist for the preschool child : Factor dimensions, their cross-instrument generality, and longitudinal persist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6, pp.430-444.

Lieberman, A.F.(1977). Preschooler's Competence with a peer: Relations with Attachment and Peer Experience, *Child Development*, Vol.48, pp.1277-1287.

O'Malley, J. M.(1977). Research perspective on social competence. *Merrill-Palmer Quarterly*, 23, pp.29-44.

Perry, D.G. and Bussey, K.(1984). Social Development, New Jersey: Prentice-Hall, pp.310-317.

Ramsey, G.(1988). Social Skills and Peer Status: A comparison of Two Socio-economic Groups, *Merrill-Palmer Quarterly*, Vol.34, No.2, pp.185-202.

Rollins, B.C., & Thomas, D.L.(1979). Parental support, power, and control techniques in the socialization of children. In Wesley R.Burr, Reuben Hill, F. Ivan Nye, and Ira L. Reiss(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Vol.1, pp.317-364. New York: Free Press.

Schaefer, E.S. and Bayley, N.(1960). Consistency of maternal behavior from infancy to preadolescenc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Vol.61, p.106.

Symonds, P.(1939). The psychology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New York : Appleton-Century-Crofts.

Turner, P. H., and Harris, M.B.(1984). Parental attitudes and preschool childrens' social competence.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44, pp.105-113.

Weinstein, E.A.(1969). The Development of Interpersonal Competence, In D.A. Golsin (Ed.), *Handbook of Socialization Theory and Research*,

Chicago: Rand McNally College Publishing Co.

White, B.L., & Watts, J. C.(1973). *Experience and environment*, Vol.1, Elglewood Cliffs, NJ : Prentice - Hall.

White, R.C.(1959). Motivation Reconsidered: The Concept of Competence. *Psychological Review*, Vol. 66, No. 5, pp.297-333.